

“하늘로! 우주로! 미래로!” 한국항공소년단이 뜬다

항공과학 미래인재 한국항공소년단



‘하늘로! 우주로! 미래로!’
항공 방산업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산하단체인 한국항공소년단이 주목받고 있다.

청소년들이 도전정신을 기르고 꿈과 희망을 선사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청소년 항공단체다. 청소년들에게 하늘과 우주에 대한 무한한 꿈을 심어주고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지난 2005년 창설됐다. 서울 연맹 설립 후 경기·경북·충북·전남·전북 등 전국 9개 연맹으로 확대됐다. 항공소년단을 거쳐 간 단원들이 9000여명에 이를 정도다.



항공 우주캠프·과학교실·직업체험 등 항공과학 분야 청소년 인재양성 단체

도전정신 기르고 꿈과 희망 찾기 최적 미국·영국 등과 국제교류 캠프도 활발

항공과학 분야 청소년 인재 양성을 위해 유익하고 재밌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하이라이트. ▲국제교류캠프(IACEA) ▲공군 항공우주캠프(여성가족부 인증) ▲코리아컵 항공우주과학 경진대회 ▲항공과학교실 ▲항공과학 융합 인재 진로직업체험 등 다채롭다.

대표적으로 공군과 함께 하는 ‘공군 항공우주캠프’가 꼽힌다. 항공우주과학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을 넓혀주는 취지로 미래 항공우주 분야에서 활약할 청소년들이 공군의 임무현장을 체험하며 안보관을 함양하고 항공우주과학을 배우는 장이다. 체력단련 및 국기를 강조하는 일반적인 병영체함과 달리, 항공우주과학에 대한 이론과 실습·고속활주·항공기 탑승 등 공군만의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김태봉 한국항공소년단 기획연구팀장은 “남녀 고등학교 80명과 국제항공소년단원 20명 등 100여 명이 참가한다”며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으로 2013년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여성가족부 제1869호) A 등급을 획득했다”고 소개했다.

국제항공소년단(IACEA)과 교류를 통해 진행되는 국제교류 캠프도 인기만점. 국제항공소년단체가 해마다 전 세계 20여개 나라의 회원국 청소년(고등학교 2학년~대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여는 행사로, 미국·캐나다·영국·프랑스 등 글로벌 미래 항공 주역들이 항공업체 견학·역사지역 탐방·국제 예절 실습 등을 통해 약 2주간 다양한 문화를 교류하는 것이 핵심이다.

창설 12주년을 맞은 만큼 그간의 성과도 크다. 다수의 단원들이 공군사관학교 및 항공과학고등학교, 각 대학 항공운항학과·우주천문 관련 학과에 입학했으며, 항공 관련 기업체에 취업하는 등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것. 한국항공소년단 활동을 통해 항공업으로 진로를 결정한 이호규(32) 단원이 대표적으로, 현재 한국항공우주산업 KFX 기체설계2팀에서 차세대 한국형전투기 설계 업무를 맡고 있다. 그는 “어린시절부터 항공소년단원으로서 활동했다. 모형항공기 대회·항공우주캠프·항공시설 견학에 참여하면서 항공분야에 큰 흥미를 느꼈고, 이것이 계기가 돼 항공으로 진로를 결정하게 됐다”며 “최근 항공 산업 토론 프로그램에 선배 자격으로 참가한 적이 있는데, 항공 분야로 진로를 결정한 단원들의 항공에 관한 지식이 상당한 수준이어서 항공 미래가 밝다는 긍정의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한국항공소년단의 가시적 성과와 폭 넓은 홍보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제적 후원은 물론

각종 지원을 하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역할이 컸다. 향후 다양하고 흥미로운 항공 우주과학 프로그램을 통해 항공소년단을 청소년들의 꿈을 실현하도록 돕는 교육의 장으로 성장시킨다는 목적이다. 조순연 한국항공소년단 홍보출판팀장은 “산업계 전반으로 봤을 때 선배 세대가 후배 양성 프로그램을 고착화한 경우가 흔치 않다”며 “1인당 국민소득 3만5000달러 시대에 가능하다고 하는데, 시대를 앞서가는 행보”라고 평가했다.

최근 설문조사에서 초·중·고·대학생의 꿈이 임대업이라는 씁쓸한 소식이 있었는데, 이러한 분위기는 한국항공소년단의 행보를 더욱 빛나게 한다. 미래를 이끌 청소년들이 안락보다는 모험적이고 창의적인 꿈을 갖게 하는 데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백운형 한국항공소년단 사무총장은 “한국항공소년단은 청소년들이 항공우주 분야 뿐 아니라 조국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활동을 통해 자신감을 키우며 탐구심에 대해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다. 또 “항공우주산업은 미래 지향적인 모토로 향후 전망이 매우 밝다. 오히려 이 분야에서 일할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항공 전문 인력이 되는 데 길잡이 역할을 할 교육 지침서를 제작하는 등 항공우주 인재 양성에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한국항공소년단 청소년들.



▲2015년 청소년 항공우주 진로체험축제 모습.



▲2016년 국제교류캠프에 참가한 학생들.



▲항공 방산업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산하단체인 한국항공소년단이 항공과학 분야 청소년 인재 양성을 위해 유익하고 재밌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주목받고 있다. 사진은 2015년 ‘공군 항공우주캠프’ 참가자들의 기념 촬영 모습.

사진제공 | 한국항공소년단

“함께 성장한다”는 개념으로 회사 이끌 것

하성용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표이사

미래 인재 육성은 항공산업의 장기투자 사회공헌활동 등 ‘박수 받는 기업’ 노력



하성용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표이사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은 항공 산업의 불모지나 다른 어떤 대한민국에 항공 산업을 일으키겠다는 커다란 희망의 씨앗을 심어왔고, 이는 국민적 염원과 각계각층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늘 보답하는 마음으로 나눔을 실천하며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될 것”이라고 했다.

사진제공 | 한국항공우주산업

-한국항공소년단 활동에서 보듯 미래 인재 육성에 관심이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청소년들이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관심과 정성이 필요하다. 과거 어려운 시절에도 우리 부모님들의 뜨거운 교육열이 한강의 기적 뿐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을 있게 한 것 아니겠나. 항공도 마찬가지다. 요즘 같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항공산업은 장기 투자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

-미래 인재 육성과 항공산업을 결부시킨다면.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인력 구조를 보면 연구개발 인력과 생산 인력이 전체 임직원의 약 80%를 넘는다. 숙련된 인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회사의 큰 자산이다. 사실 지금이야 항공 산

업이 대한민국 제조업의 신성장동력으로 관심 받고 있지만 항공이라는 말조차 생소하던 시절에는 사람 구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 첨단 기술의 집합체인 항공기를 만들고 생산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손이 가장 중요하다. 성장기 청소년 때부터 우수한 인재를 직접 육성해야 할 필요성을 평소에도 많이 느꼈다. 항공우주 분야에 대한 도전정신, 열정을 가진 인재들이 지금보다 더 좋은 여건 속에서 국가 항공우주산업 발전에 매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나눔봉사단 등 사회공헌활동에도 관심이 많은데.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더 큰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협력업체들이 함께 발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눔봉사단은 홍보성 이벤트 사회공헌보다는 지역사회의 현안을 꼼꼼히 살펴 꼭 필요한 일을 지원하고 주민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봉사단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소외된 이웃에게 진정 어린 사랑을 전해 모든 국민으로부터 박수와 존경을 받는 기업으로 꾸준히 성장하겠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성장 동력과 향후 계획이 궁금하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항공 산업의 불모지나 다른 어떤 대한민국에 항공 산업을 일으키겠다는 커다란 희망의 씨앗을 심어왔다. 항공 산업을 키우기 원하는 국민적 염원, 각계각층의 성원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나눔을 실천하며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될 것이다. 단순히 기업 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을 ‘나눔’다는 개념이 아닌 ‘함께 성장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겠다.”

정정욱 기자

2 하성용 사장

▲1951년 경북 영천 출생 ▲경북고등학교 졸업 ▲고려대 법학과 졸업 ▲고려대 대학원 법학과 석사 ▲경상대 경영학과 명예박사 ▲1977년 대우중공업 입사 ▲2010년 한국항공우주산업 부사장 ▲2011년 성동조선해양 대표이사 사장 ▲2013년~현재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표이사 사장

한국항공소년단·에비에이션 캠프·KAI 과학기술상·나눔봉사단…

한국항공우주산업 사회공헌활동 눈에 띄네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인재육성 곳! 지역사회 공감하는 봉사활동 활발

한국항공소년단 활동과 더불어 항공 방산업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사회공헌 활동도 눈길을 끈다.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기업 사회공헌 활동의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한국항공소년단 활동을 필두로 ‘에비에이션 캠프’ 및 ‘KAI 과학기술상’ 등 기업의 특성을 살린 인재육성과 저변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에비에이션 캠프’는 교과서 속 수학 및 과학 원리가 항공기 개발·생산과정에 실제 어떻게 적용되는지 체험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2009년부터 연 1500명 이상의 학생과 교사들이 참여했다. 실제 항공기 개발과 생산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임직원들이 교재 개발과 진행을 맡아 호응이 더욱 뜨겁다.

‘KAI 과학기술상’도 눈에 띈다. 대학(원)생들의 항공우주 탐구 의식 고취를 위한 ‘항공우주논문상’과 항공우주분야에 공로가 큰 인사들을 포상·격려하는 ‘항공우주공로상’이 확대됐다.

‘나눔봉사단’을 통한 진정성 있는 봉사활동도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300명 이상 직원들이 재능기부·봉사지원·장학사업 등 3개 분과로 나뉘, 김치나눔·복지센터

및 교육기관 물품 지원 등 다채로운 봉사활동을 수행 중이다.

이벤트성 활동을 지양하고 적재적소의 봉사를 실천한다는 게 봉사단의 신념. 이동식 목욕차량 지원·지역전통 문화재 보존 후원·사천 지역 어린이합창단 후원 등이 좋은 예다. 회사 측은 “창단 직후 다소 식상한 봉사활동이 아니냐고 의구심을 가졌던 일부 직원들과 지역사회가 이제는 나눔봉사단의 진정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지난해 지역사회에서 KAI로 도착한 감사 편지만 100여 통이 넘는다”고 했다.

국산항공기 수출을 대상으로 한 해외봉사는 덩이다. 지난해 7월 인도네시아 켄다 지역 60여개 고등학교에 과학기술 관련 필독서 6130권을 전달했고, 올 여름에는 35명의 직원들이 휴가를 반납하고 자비로 필리핀행 비행기표를 끊어 학교 짓기 봉사를 떠날 예정이다.

향후 직접 지원보다 자립을 돕는 후원을 확대한다는 게 회사 측 방침이다. 올해 완료 예정인 장애인과 다문화가족 자립을 돕기 위해 제빵 시설·아열대 비닐하우스 구축 등이 그 예다. 나눔봉사단 관계자는 “봉사활동을 통해 임직원끼리 직급과 업무를 떠나 자연스레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만들어졌다”며 “임직원 가족까지 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은 덕에 가족 관계도 좋아졌다. 이제는 자녀들이 먼저 나선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정정욱 기자